

# 大巡思想에 나타난 敬에 관한 理解

金正泰\*

## 目次

I. 머리말	3) 퇴계(退溪)가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II. 敬에 관한 多様な 解釋과 修養論	4) 水雲이 밝힌 敬과 修養論
1. 敬의 辭典的 意味와 理解	III. 大巡思想에 나타난 敬에 대한 理解
2. 전적(前績)을 통해 나타난 敬의 意味	1. 修道의 要諦로서의 敬
1) 정이천(程伊川)이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2. 敬과 天·地·人 三界의 關係
2) 정명도(程明道)가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3. 恭敬의 對象으로서 上帝
	IV. 맺음말

## I. 머리말

경(敬)과 관련한 전통적인 견해의 특징은 인간의 심성을 살아 움직이는 실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근원을 탐구하는 이론과 이치를 보존하는 인격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론과 수양론(修養論)이라는 두 학문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양자 사이의 소통과 조화를 통해 두 영역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원에 관한 탐구가 삶의 근거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양론의 특징은 심성의 보존과 배양을 통하여 인격의 향상을 추구하는 실천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원에 대한 분석과 접근이 이론의 주요한 기능이라면 수양론은 마음의 응용적 훈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들은 체용일원(體用一元)의 관계를 이루며, 동일한 본질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수도의 요체(要諦)인 경은 비단 대순사상 뿐만이 아닌 동양 전체사상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지대하다. 특히 성학(聖學)의 근본이 되는 수행의 덕목 중 필수적인 것이므로 수양론(修養論)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적 개념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 연구 방법은 이러한 경이 지니는 특성에 비추어 전적(前續)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그곳에서 주장되는 경(敬)의 의미와 수행방법을 살펴본 다음 대순사상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어 지는가를 살피는데 주목할 것이며, 나아가 대순사상이 지니는 경의 특성을 살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Ⅱ. 敬에 관한 多樣的 解釋과 修養論

### 1. 敬의 辭典的 意味와 理解

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자전을 통해 살펴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① 공경: 경. '君臣主敬' - 孟子
- ② 공경할: 경. '敬仰' '敬親者 不敢慢於天' - 孝經
- ③ 삼감: 경. 조심, 근신 '敬於禮之本也' - 國語
- ④ 삼갈: 경. 경계하여 조심함, '敬慎', '執事敬' - 論語

또한 『설문(說文)』에서는 '敬肅也 ㄸ支苟' 라 하여 모든 것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에서는 '恭敬擗節' 이라 하여恭과 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呂覽孝行』에서는 '敢不敬乎'의 註에서 '敬畏慎也'라 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볼 때 경이 지니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경은 “공경하고 삼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공경”과 “삼간다”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대별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이 지니는 의미는 항상 자신을 삼가(愼) 하고, 타인이나 타 존재에 대해 공경(恭敬)하며 존대하는 뜻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스스로 삼간다는 의미는 ‘君子愼其獨’(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의 내용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무자기(無自欺)’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리고 공경에 나타나는 경의 궁극적 실현과 목적은 신앙적 대상인 상제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敬)은 성(誠)과 함께 동질적 가치를 지니는 덕목으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동시에 부모와 장상(長上)을 공경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며, 사회적으로는 경순(敬順)·존경(尊敬)을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초가 된다. 또한 오늘의 인간 실생활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경천(敬天)과 숭경(崇敬)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신앙과 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것이다.

## 2. 전적(前績)을 통해 나타난 敬의 意味

이 장에서는 기존에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에 대한 입장과 그를 통해 실천되어지는 수행의 방법을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송시대(北宋時代)의 도학자들 중에서 정이(程頤=程伊川, 1033~1107)는 거경궁리(居敬窮理: 경에 거처하여 마음을 함양하고 이치를 탐구 함)를 수양의 근본 공부로 삼았고, “이치와 합일하는 것(與理爲一)”을 인생의 최고 경지로 여겼다. 경(敬)을 말하는 것은 공자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공자는 경이란 인(仁)을 추구하는 근본공부의 하나라고 보았다. 정호(程顥=程明道, 1032~1085)도 경을 매우 중시하여 “이 이치를 인식하고 터득하려면 성(誠)과 경(敬)으로써 보존해야 한다(識得此理 以誠敬存之)”고 했다. 그러나 경을 가장 중요한 수양공부로 여긴 것은 정이(程頤)에게서 비롯된다. 그는 경과 앎을 지극히 하는 것(致知)을 아울러 중시했다.<sup>1)</sup>

### 1) 정이천(程伊川)이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정이(程頤)는 어록(語錄)에서 경(敬)에 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심성을 넓히고 복돋우는 것은 반드시 경으로써 하고, 학문을 진보시키는 것은 앎을 지극히 하는 데에 있다). 2)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원리이며, 경은 이치를 밝히는 원리이다. 경과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비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치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정이의 우주론은 이치를 매우 중시했으며, 그의 인생론도 실제로는 이치와 일관되는 근본관념이다.3)

정이(程頤)가 내세우는 경(敬)은 마음을 주재하는데 있어, 오로지 한결같이 하여 방종하고 태만함이 없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學者先務 固在心志 有謂欲屏去聞見知思 則是絕聖棄智 有欲屏去思慮 患其紛亂 則是須坐禪入定 如明鑒在此 萬物畢照 是鑒之常 難爲使之不照 人心不能不交感萬物 亦難爲使之不思慮 若欲免此 唯是心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大凡人心不可二用 用於一事則他事更不能人者 事爲之主也 事爲之主 尙無思慮紛擾之患 若主於敬 又焉有此患乎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敵之謂一 且欲涵泳主一之義 一則無二三矣 易所謂敬以直內 義以方外 須是直內 乃是主一之義 至於不敢欺 不敢慢 尙不愧於屋漏 皆是敬之事也 但存此涵養久之 自然天理明 (배우는 사람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본래 마음과 뜻에 있다. 듣고 보고 알고 생각함을 물리쳐버리고자 하면, 이것은 성인을 끊어서 지혜를 버리는 것이다. 생각과 걱정을 물리치고자 함이 있으면서 번잡하고 어지러움을 근심한다면, 반드시 좌선(坐禪)하여 선정(禪定)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맑은 거울이 여기에 있으면 온갖 사물이 모두 비친다. 이것은 거울의 변함 없는 기능이므로 거울로 하여금 비추지 않게 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온갖 사물을 교감하여 느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역시 그것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걱정함이 없도록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면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주인으로 삼는가? 경(敬)으로써 할 뿐이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쓰일 수 없으며, 한 가지 일에 쓰이면 다른 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주인이 되면 오히려 생각과 걱정 그리고 어지러움을 걱정하는 근심이 없으니, 만약

1) 張岱年 著, 金白熙 譯, 『中國哲學大綱』 下, (서울: 까치글방, 1998) 688쪽.

2) 『語錄』, 卷, 18

3) 張岱年, 앞의 책, 688 참조.

경(敬)에 중심을 두면 또한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이른바 경(敬)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니; 이른바 하나로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의미에 꼭 잠기고자 하여 한결같이 하면, 들이니 셋이니 할 것이 없다. 『역(易)』에서는 말했다. “경(敬)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밖의 행동을 바르게 한다.” 반드시 마음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의미이다. 감히 속이지 않고 감히 게으르지 않으면 오히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경의 일이다. 단지 이것을 간직하여 심성을 북돋우는 것이 오래되면 저절로 하늘의 이치가 밝아진다).<sup>4)</sup>

이처럼 경(敬)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라는 것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가지 않으면 외부 사물에 이끌리게 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바로 경(敬)인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경(敬)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敬)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어둡고 게을러 흩어지게 되니, 어떠한 자극이 오면 모두 그것에 이끌리게 되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敬)을 유지하면 자극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오로지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합당한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정이는 또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말했다.

敬只是主一也 主一則既不之東 又不之西 如是則只是中 既不之此 又不之彼 如是則只是內 存此則自然天理明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미 동쪽으로도 가지 않고 서쪽으로도 가지 않으니, 이와 같다면 한 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저쪽으로도 가지 않으니, 이와 같다면 안에 있을 뿐이다.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저절로 하늘의 이치가 밝아진다).<sup>5)</sup>

一者無他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一則自然非僻之干 此意但涵養久之 天理自明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르게 하여 엄숙하게 하면 마음이 곧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니, 한 곳에 집중되면 저절로 그릇되고 편벽된 간섭이 없게 된다. 이것은 오직 심성을 넓히고 북돋우는 것을 오래 하면 하늘의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는 의미이다).<sup>6)</sup>

4) 『語錄』, 卷, 15

5) 위의 책, 같은 곳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속으로 집중시켜서 늘 저절로 깨달아 “마음이 속에 없는(心不在焉)” 때가 없다는 말이다. 마음을 고르게 하여 엄숙하게 하면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고,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으면 바르지 않은 자극에 이끌리지 않는다.

정이는 또 의(義)를 말했는데, 경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또한 반드시 의(義)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敬只是持己之道 義便知有是有非 順理而行 是爲義也 若只守一箇敬 不知集義 却是都無事也 (경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옳고 그름이 있음을 알아 반드시 이치를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단지 하나의 경만을 지킬 뿐 의를 모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되는 일이 없다.) 7)

정이는 또, “處物爲義(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의(義)이다.)”<sup>8)</sup> 라고 말했다. 단지 경(敬)만을 지키고 의(義)를 실천하는 것을 모르면 곧 실질적인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경(敬)은 심성을 넓히고 북돋우는 공부이며, 의(義)는 사람의 도(人道)의 실질적인 일의 기준이다. 또한 정이는 경(敬)과 의(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敬義夾持 直上達天德自此 (경과 의를 함께 지니면 바로 하늘의 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으로 부터이다) 9)

경(敬)과 의(義)가 서로 보완되어야 하늘의 덕(德)에 경지를 이룰 수 있다. 경과 의에 관한 정이의 사상은 실제로 『易』 「문언전(文言傳)」에서 유래한다.

정이는 경을 말할 때 자주 “이 심성을 넓히고 북돋우는 것을 보존하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하늘의 이치가 밝아진다(存此涵養久之 自然天理明)” 고 했으니, 경을 유지하는 목적이 또한 이치를 밝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이는 앎을 지극히 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앎을

6) 위의 책, 같은 곳

7) 위의 책, 卷, 18

8) 『정씨역전(程氏易傳)』, 「간괘(艮卦)」

9) 같은 책, 같은 곳

이론 뒤에 라야 실천할 수 있고 앎을 이루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이에게 있어 앎은 덕행의 기초인 것이다.

정이천이 말한 수양방법은 궁리(窮理)를 중시했는데, 그가 논한 궁리란 “지식을 얻는 일”에 가깝다. 고 이천은 말하고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함양(덕성을 기름)하려면 경을 공부해야 하고(涵養須用敬), 학문의 정진은 지식의 추구에 달려 있다(進學則在致知).<sup>10)</sup>

이처럼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공부가 경을 실천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은 학문을 통한 덕성을 기르는 기초이며, 그것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인 의(義)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경(敬) 공부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敬以直內, 有主於內則虛, 自然無非僻之心, 如是則安得不虛. 必有事焉, 須把敬來做件事著. 此道最是簡, 最是易, 又省工夫, 爲此語雖近似常人所論, 然持之久必別. (경으로써 안을 바로잡아 안에 주관이 생기면 허심해지니, 자연히 부정한 마음(非僻之心)이 없어지니 어찌 허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정진하되 경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 도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게다가 공부를 덜 수 있다. 이 말은 비록 보통 사람들의 주장에 가깝지만 오래도록 견지하면 반드시 [여타의 것들과] 차별이 있을 것이다).<sup>11)</sup>

呂與叔嘗問爲思慮紛擾, 某答以 但爲心無主. 若主於敬, 則自然不紛擾. 譬如以一壺水, 投於水中. 壺中既實, 雖江湖之水, 不能入矣. (여숙이 “사려의 혼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만 마음에 주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을 위주로 하면 자연 혼란이 없어질 것이다. 비유하건대 물병을 강물 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 병이 이미 꽉 차 있으면 비록 강호의 물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sup>12)</sup>

경건하면 마음이 비게 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마음이 꽉 차여 있는 상태에서 천지간에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함을 이룬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면 경은 맹자가 말한

10) 『遺書』, 卷, 18

11) 『遺書』, 卷, 15 [非僻 : 도리에 어긋나는 나쁜 짓]

12) 『遺書』, 卷, 18

“반드시 정진해야 한다” 는 그 공부이다.

염계는 고요함을 주장했고(主靜) 이정은 경건을 주장했는데(主敬), 경건은 고요함과 다르다. 고 이천은 말하고 있다.

敬則自虛靜 不可把虛靜喚做敬 경건하면 자연히 허정(虛靜:허심하고 고요함)해진다. 그러나 허정을 경으로 바꾸어 부를 수는 없다. 13)

纔說靜 便入於釋氏之說也 不用靜字 只用敬字 纔說著靜字便是忘也 孟子曰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必有事焉 便是 心勿忘 勿正 便是 勿助長 (요를 중시하면 곧 불교의 이론에 빠지니, 정(靜)이라는 글자를 쓸것이 아니라, 오직 경(敬)이라는 글자를 써야 한다. 정이라는 글자를 논하는 것은 곧 “망각”을 의미한다. 맹자는 “항상 정진하되 교정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망각하지도 말고 조작하지도 말라” 고 했는데, “항상 정진하면” “마음에 망각되지 않고” “교정하지 않으면” “조장하지 않게 된다). 14)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이천이 주장하는 경은 가장 궁극적인 경지를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경의 실현은 몸과 마음을 통해 완전함을 이룬 상태이며, 마음과 행동의 통일을 이룬 경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정명도(程明道)가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이 장에서는 정명도가 제시한 경과 그것을 통한 수양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명도가 제시한 경의 의미를 살펴보자.

學者須先識仁 仁者渾然與物同體 義禮智信皆仁也 識得此理 以誠敬存之而已 不須防檢 不須窮索 若心懈 則有防心苟不懈 何防之有 理有未得 故須窮索 存久自明 安待窮索 此道與物無對 大不足以名之 天地之用 皆我之用 孟子言萬物皆備於我 須反身而誠 乃爲大樂 若反身未誠 則猶是二物有對 以己合彼 終未有之 又安得樂…(학문하는 사람은 먼저 인을 인식해야 한다. 인이란 만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로 의·예·지·신이 모두 인이다. 이런 이치를 인식한다면 성(誠)·경(敬)으로 보존하면 되니 단속하거나 애써 모색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나태하면 단속해야 하겠으나 나태하지 않다면 무슨 단속이 필요하겠는가? 또 이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애써 모색해야 하겠으나 오래 지속하면 자연히 깨달아질 것이니 굳이

13) 『遺書』, 卷, 15

14) 『遺書』, 卷, 18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도는 만물과 대립관계에 있지 않으니 “위대하다(大)”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 천지의 작용은 모두 나의 작용이기에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으니 자신을 성찰하여 참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 고 했다.…) 15)

정명도는 학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우선 조건으로 인(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의 표현은 의·예·지·신(義禮智信)으로 나타나며, 그것의 보존에 성(誠)과 경(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경의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최고의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인의 실현에서 그것의 가능성은 성·경의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學者不必遠求 近取諸身 只明人理 敬而已矣 便是約處… 故有道有理 天人一也 更不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塞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欲然而餒 知其小也 思無邪 無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有差者皆由不敬不正也 (만약 자신을 성찰하여 참되지 못하면 여전히 두 사물이 대립하고 있으니 자기를 외물에 부합시키려고 한들 끝내 이룰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또한 배우는 사람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단지 인간의 도리를 밝혀 경(敬)에 힘쓰면 될 뿐이니 이것이 요점이다. …따라서 도가 있고 리가 있는 곳에 자연과 인간(天人)은 하나이니 분별되지 않는다.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바로 나의 기이다. 그것을 배양하여 방해하지 않으면 온 천지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심(私心)에 가려지면 꺼림하여 기가 죽게 되는데 자신이 좀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고(思無邪)” “언제 어디서나 경(敬)으로 일관한다(無不敬)”는 이 두 구절에 따라 실천한다면 어찌 어그러질 수 있겠는가? 어긋난 경우는 모두 경(敬)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때문이다.) 16)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경의 의미를 요약한다면 경은 언제 어디서나 일관하여야 할 실천의 요체이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나 도리가 어긋남은 결국 경을 실현시키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생각함에 있어 사사로움을 멀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을 경이라 하였으며, 그것을 실천할 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주 만

15) 『遺書』, 卷, 2 上

16) 『遺書』 卷, 2 上

물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우리가 천지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가 됨을 알고 그 리(理)를 인식한 다음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으면 된다. 모든 행위는 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誠)·경(敬)으로써 보존된다.”는 말이고 또 “반드시 항상 정진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오래되고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만물과 일체가 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시 단속할 필요도 없고 애써 모색할 필요도 없다. 그 이상 단속하고 애써 모색하는 것은 “조장”이다.<sup>17)</sup>

우주 만물과 인간이 일체임을 확인하는 이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誠敬)을 다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이치는 오래 동안 보존되는 것이다. 이는 경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실현하는 원리인 동시에, 도학의 궁극적 경지를 실현하는 실천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서』에는 또 다른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연하고 있다.

學者須敬守此心·不可急迫 當栽培深厚 涵泳於其間 然後可以自得 但急迫求之 只是私己 終不足以達道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 마음을 경건히 지켜야 하고, 조금씩 압박하면 안 된다. 깊고 두텁게 배양하여 그 안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자득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씩 압박하여 추구하면 그저 사사롭게 되어 끝내 도(道)에 도달할 수 없다).<sup>18)</sup>

이와 같이 정명도는 경의 의미를 유가적 전통의 최고 덕목인 인(仁)을 실천하고, 보존하는 요체이며, 나아가 일심을 주재하는 실체이며,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양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을 실천하고 보존하면 궁극적인 경지를 이루어 도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17) 『新編』 V, 113쪽 : “성·경으로 보존한다” 수양방법은 곧 맹가(孟軻)가 말한 “호연지기를 기르는(養浩然之氣)” 방법이다. 그 방법은 “반드시 항상 정진하되 멈추지 않고, 망각하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고, 추호의 억지도 부리지 않는 것이다.” “항상 정진한다”고 함은 그 도리를 견지하고 그런 정신 경지를 소유하려고 스스로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거나 속효(速效)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면 곧 “조장”이다. 조장은 맹가가 말했듯이, 마치 손으로 모를 뽑아 빨리 자라게 하려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

18) 『遺書』, 卷 2, 上

### 3) 퇴계(退溪)가 밝힌 경(敬)과 수양론(修養論)

#### (1) 敬의 構造

한국의 철학에서 경에 대한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펼친 사람은 퇴계라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경의 요지는 마음을 엄숙하게 간직하고 행동을 반듯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의 실천으로서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거경(居敬)의 수양론을 중시하고 있다.

퇴계는 도학(道學) 실현을 위한 학문방법으로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의 두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수양론은 퇴계의 사상적 중추이면서, 그의 사상적 특성을 파악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한 수양론의 핵심인 경은 거경(居敬)과 지경(持敬)으로 그것의 중심을 살필 수 있다. 참고로 경의 문제는 주렴계(周濂溪)가 그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언급한 ‘주정(主靜)’에 대해 정이천(程伊川)은 ‘주경’을 제시하고 주자가 이를 계승함으로써 송대(宋代) 도학(道學)의 학문방법론을 중심개념으로 확립된 것이지만<sup>19)</sup> 퇴계는 송대 도학에 앞서 요(堯)의 ‘흠명(欽明)’, 순(舜)의 ‘공업(兢業)’, 탕(湯)의 ‘성경(聖敬)’, 무왕(武王)의 ‘경승(敬勝)’, 공자(孔子)의 ‘행독경(行篤敬)’과 ‘수기이경(修己以敬)’ 등 상고(上古)에서부터 거경의 수양론적 전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sup>20)</sup>

퇴계에 있어 경(敬)은 ‘마음을 주재(主宰)하는’(一心之主宰) 것으로, 여기서 경은 마음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敬)은 다만 흠어지기 쉬운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수렴하는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경(敬)’은 본체(本體)로서 활동하기 이전의 정시(靜時)와 작용(作用)으로서 활동한 이후의 정시를 포괄하여 인간의 마음이 ‘일치되어 분산되지 않게’ 하는(主一無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마음을 수렴하여 한 사물도 마음에 용납하지 않는’(收斂心身) 마음의 집중상태이며, ‘항상 깨어 있는 심법(常惺惺法)’의 각성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안으로는 엄숙한 마음가짐과 밖으로는 가지런한 모습’(整齊嚴肅)을 지키는 다양한 실천방법으로 경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19) 『退溪先生言行通錄』, 권 33, 21, ‘答吳子強’ “說靜不若說敬, 程先生已言之.”

20) 같은 책, 권 37, 29-31, ‘答李平叔’

21) 같은 책, 권 29, 13, ‘答金而精’, “外嚴肅而中心一, 則所謂主一無敵. 所謂其心收斂

퇴계는 경의 개념적 구조를 동(動)·정(靜), 체(體)·용(用), 내(內)·외(外), 시(始)·종(終), 거경(居敬)·궁리(窮理) 등의 상응관계 내지 일치관계로 분석하여 해명하고 있다.

정제(整齊)·엄숙(嚴肅)과 동(動)·정(靜)의 체(體)·용(用) 구조는 고요할 때 ‘엄숙한 마음’(嚴肅)을 본체로 하며 활동할 때에는 ‘가지런한 모습’(整齊)을 그것의 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 경의 실현으로서 동·정 내지 체·용의 양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경이 원숙하게 되면, 동(動)과 정(靜)이 하나가 되고, 체(體)와 용(用)이 서로 합하는 구경(究竟)의 단계, 곧 마음(안)과 몸(밖)이 일치하는 수양론적 완성 단계를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sup>22)</sup>

또한 조존(操存)·성찰(省察)의 동(動)·정(靜)구조로서, 퇴계는 “고요한 데서 마음을 간직하면(操存) 어둡지 않고, 활동하는 데서 살피면(省察) 섞이지 않는다.”<sup>23)</sup> 고 하여,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조존(操存)·존양(存養)의 함양(涵養)이 정시(靜時)의 공부이며, 성찰(省察)이 동시(動時)의 공부로 대응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는 사려(思慮)가 일어나기 이전의 고요함 즉 적(寂)·정(靜)의 마음 상태를 ‘발동하기 이전’(未發)의 상태로 보았으며, 사려가 일어나고 사물에 대응하는 활동(感·動)이 나타나는 상태를 ‘발동한 이후’(已發)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미발의 경우는 ‘경계하여 삼가며, 두려워할 자리’(戒慎·恐懼之地)라 하였고, 이발(已發)의 경우는 ‘자신에게서 살피고 정밀하게 살피는 때’(體察·精察之時)라고 하여, 동·정에 따른 경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sup>24)</sup>

‘不容一物, 所謂常惺惺者, 在其中.’ 여기서 ‘主一無敵’은 程伊川이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敵之謂一”이라고 한 말을 朱子가 결합하여 쓴 용어이고, ‘常惺惺法’은 上蔡 謝民佐가 “敬是常惺惺法”이라고 한 말에서 나오며, ‘收斂身心’은 和靖 尹淳이 “敬有甚形影, 只收斂身心, 便是主一”이라고 한 말에서 썼고, ‘整齊嚴肅’은 朱子가 “程子言敬, 必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爲先”이라고 하거나, 朱子에게 질문자가 “和靖論敬, 以整齊嚴肅… 上蔡云, 敬是常惺惺法”이라고 한 데서 나타나고, 朱子가 “持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 ‘整齊嚴肅·嚴威嚴格·動容貌·整思慮·正衣冠·尊瞻視’ 此等數語, 而實加工焉” 이라고 한 말에서 나온다. 『性理大全』, 권 46, ‘持敬’ 참조.

22) 같은 책, 권 28, 30 ‘答金而精’, “須是兩致其功, 熟之又熟, 而至於動靜一, 體用合, 方爲究竟處耳.”

23) 같은 책, 권 10, 23, ‘答盧寡悔 別紙’, “動而操尊, 不昧於虛寂不用之處, 動而省察, 不雜於幾微運行之時.”

경(敬)·의(義)와 내(內)·외(外)의 대응구조는 『주역(周易)』에서 “경(敬)으로 마음속을 곧게 하고, 의(義)로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구절에서, 경(敬)-내(內)-(靜)와 의(義)-외(外)-(動)의 관계가 성립되며, ‘경과 의를 겸하여 지닐 것’(敬義夾持)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을 중심으로만 보면 경이 동(動)·정(靜), 현(顯)·미(微), 내(內)·외(外)를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5)</sup>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를 대언(對言)으로 하는 경우와 경(敬)속에 거경·궁리를 겸언(兼言)하는 경우가 있다. 퇴계는 설선(薛瑄-文清)이 “존심단좌(存心端坐)하는 때는 거경이요, 독서에 의리를 사색하고 처사에 당부를 추구하는 것은 궁리이다.”고 언급한 것은 거경과 궁리를 대언하여 경을 거경으로 본 것이다. 우성전(禹性傳)이 “경중(靜中)에 마땅히 존심단좌하여야 하지만 동처(動處)에서도 더욱 이를 힘써야 마땅하다.”고 한 것은 경(敬)으로 지(知)·행(行)과 동(動)·정(靜)을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26)</sup>

또한 퇴계는 격물(格物)과 지경(持敬)의 사이에서도 “경(敬)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야 하는 것이니, 진실로 지경(持敬)하는 방법을 알게되면 이치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된다. 이로써 격물하면 만물이 나의 살펴봄을 벗어날 수 있고, 이로써 사물에 대응하면 사물이 마음에 누가 될 수 없다.”<sup>27)</sup>고 하여, 경(敬)으로서 지(知)·행(行)을 관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窮理)도 행(居敬)을 통하여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으며, 경(敬)의 수양론 아래에 인식과 행위가 균형 있게 완성될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양방법의 핵심개념을 경(敬)으로 제시하고 있는 퇴계는 경의 실천은 동(動)·정(靜)과 표(表)·리(裏)의 두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동(動)·정(靜)에서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고요할 때 두려워하고 삼가며, 성

24) 같은 책, 권19, 39-40, ‘答黃仲舉’, “寂然而靜, 則所謂未發也… 感通而動, 則所謂已發也… 未發, 則爲戒慎恐懼之地, 已發, 則爲體察精察之時.”

25) 같은 책, 권 36, 15, ‘答李宏仲’, “敬以直內對義以方外, 則敬靜義動, 單言, 則與必有事焉, 皆當貫動靜, 一顯微, 微內外看.”

26) 같은 책, 권 32, 14-15, ‘答禹景善問目’, “…以居敬窮理對言, 則如此說, 以敬兼知行·貫動靜言, 則如公說.”

27) 같은 책, 권 28, 7, ‘答金惇敘’, “蓋敬者, 徹頭徹尾, 苟能知持敬之方, 則理明而心定, 以之格物, 則物不能逃吾之鑑, 以之應事, 則事不能爲心之累.”

품(天理)을 함양함과, 활동할 때 인욕(人欲)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정자(程子)가 제시한 경의 실천방법에서 ‘옷과 갓을 반듯하게 함’(正衣冠)과 ‘엄정하게 정돈하고 엄숙히 함’(莊整嚴肅)은 정에서 말한 것이요, ‘생각을 하나로 모음’(一思慮)과 ‘속이지 않고 태만하지 않음’(不欺不慢)은 동에서 말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동시(動時)와 정시(靜時)의 수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28)</sup> 특히 그는 정시의 경으로 정좌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는데 앉는 자세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엄숙하고 가지런하게’(齊莊整齊)할 것을 강요하여 고요한 마음의 자세와 엄숙한 마음의 수렴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겉과 속(表裏)에 걸친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퇴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視·聽·言·動)활동이나 ‘용모와 말씀하는 기개’(容貌·辭氣)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의 수양공부는 바깥에서 통제하여 마음 속의 성품을 배양하는 방법임을 확인한다.<sup>29)</sup> 이처럼 경의 수양공부는 바깥의 모습과 속의 마음이 서로 작용하여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며, 특히 겉으로 드러나서 ‘볼 수 있고 지키기 쉬운 방법’(可見易守之法)에 의해 속으로 ‘보이지 않고 묶어 두기 어려운 마음’(不可見不可係之心)을 배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sup>30)</sup>

여기서 동·정과 표·리를 관통하는 경의 수양공부는 모두 확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쌓아 가며 오래도록 힘써서’(眞積力久) 순수하고 익숙한 데(純熟) 이르러, ‘고요할 때 곧은’(靜虛動直) 마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며,<sup>31)</sup> 또한 “엄숙하게 함양함을 근본으로 삼고 깊이 침잠하여 연색함을 학문으로 삼아서, 이 도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친절하게 체인하여, 그 사이 노닐고 젖어서(優游涵泳) 점차 쌓아 오래 가다(積漸悠久) 보면 홀연히 녹아서 깨끗해지게(融釋脫灑)

28) 같은 책, 권 35, 39, ‘答李宏中’, “然而動時衣冠, 豈可不正…然而靜時此心, 尤不可不主於一本原之地.”

29) 같은 책, 권, 31, 2, ‘答禹景善’, “從視聽言動貌辭氣上做工夫, 所謂制於外, 所謂養其中也.”

30) 같은 책, 29, 12, ‘答金而精’, “蓋人心無形, 出入不定, 須就規矩繩墨上守定, 便自內外帖然, 此日用工夫至要約處.”

31) 같은 책, 권 28, 19, ‘答金惇紱’, “靜而涵天理之本然, 動而決人欲於幾微, 如是眞積力久, 至於純熟, 則靜虛動直.”

된다.” 고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소식’(眞消息)이라 밝히고 있다.<sup>32)</sup> 이처럼 경은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도리와 일치하여 자유로운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수양의 실천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퇴계는 수양의 과정에서 경의 올바른 실현을 상실한 데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병증(病症)을 진단하고 그 치료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마음의 병증으로 가장 깊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분산하고 조급한 병과 고요함에 빠지는 병이다. 먼저 그는 ‘마음이 분산하고 동요되는’(心之紛擾) 증세에 대해서는 경을 지킴(持敬)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제시한다.<sup>33)</sup> 또한 그는 생각이 많은 해독이 배우는 이의 공통적 근심이라 지적하고, 마음이 번잡하여 소란하며, 특히 편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양(正養)하는 공부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고요함에 빠지는 병으로서, 그는 고요함이 한번 지나치면 선(禪)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정(靜)보다 경(敬)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주정(主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박약(博約)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동(動)이 없이 정(靜)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제시한 것이다.<sup>34)</sup>

마음의 병은 고요함이나 활동함의 어느 한 쪽에 빠지는 병인데, 곧 ‘항상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요함에 빠져 활동에 없게 자 하는 병과, ‘생각을 한 번도 그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활동에 치우쳐 고요한 때가 없는 병으로서, 동(動)·정(靜)이 분리되어 한 쪽에 치우친 병폐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자(朱子)가 말한 ‘항상 잠들어 깨지 않거나, 항상 행하여 그치지 않는 병’(常寐無覺常行不輟之病)이라 하여,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병증(病症)은 마음속에 생각이 얽혀서 풀리지 않는 현상이다. 그는 정자(程子)가 말한 ‘자신을 허물하고 문책함’(罪己責躬)이 착한 단서를 여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32) 같은 책, 권 26, 14-15, ‘答鄭子中’, “一以莊敬涵養爲本, 沈潛研索爲學, 見得此箇道理, 眞不可須臾離處, 將此身心親切體認, 得以優游涵泳於其間, 庶積漸悠久之餘, 忽然有融釋脫灑處, 便是眞消息也.”

33) 같은 책, 권 39, 24, ‘答洪酢’, “今君患心之紛擾, 不以持敬爲治病之藥, 乃以明道所斥之說,”

34) 같은 책, 권 28, 29-30, ‘答金而精’, “非以主精爲不可也, 然亦不當壓博約之煩, 而塊然以主精”

머물러 있으면 한 덩어리의 사사로운 생각(私意)이 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천리(天理)와 융화되어 흔적이 없는 데까지 가야만 마음이 올바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sup>35)</sup> 그것은 수양의 단계가 자신을 죄책(罪責)하는 자의식의 단계에서 마음이 천리와 하나가 되는 차원까지 이끌어 올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태극(太極)·리(理)로서의 심체(心體)를 온전하게 실현되는 경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마음을 간직하는(存心)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사물이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고 사물을 싫어하여 잊고자 하며, 움직임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즐겨워하는 것”은 노자(老子)나 불교(佛敎)의 무리들이 허무(虛無)와 공적(空寂)에 빠져 있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정명도(程明道)의 존심(存心) 방법에 근거하여 마음을 간직하는 참된 태도로 “마음이 사물을 대함에 오기 전에는 맞이하지 않고, 막 오면 비추어 대응하고, 대응하고 나서는 남겨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은 “그 본체가 맑아서 명경지수(明鏡止水) 같으니, 비록 매일같이 온갖 일을 응접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일찍이 한 물건도 없다.”<sup>36)</sup>고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양 법으로 존심(存心)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였다.

퇴계는 왕양명의 주장처럼 마음에 근본을 두지 않고 외형의 의절만 강구하는 자는 배우와 다름이 없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백성의 뿔뿔한 본성과 사물의 법칙’(民彝物則)이라는 내면의 심성과 대상의 법칙이 모두 하늘이 내려 준 참되고 지극한 이치임을 지적하여, 대상적 사물의 이치를 찾는 일을 거부한 양명의 심학적 전체를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경을 주장하여 (마음의) 근본을 세우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이룬다.”(主敬以立本, 窮理以致其知)라고 한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마음에 경을 주제로 삼아 사물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게 되면, 마음이 이치와 의리에 밝아져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통하고, 크고 작은 것이 일치하는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의 근본을 확립하되 대상으로서의

35) 같은 책, 권 28, 3, ‘答金惇敘’, “夫罪己責躬, 是乃善端之發, 非私意也, 然此一事橫在肚裏而不釋, 則亦同歸於私意吝習, 必須天理融和無痕, 然後心得其正矣.”

36) 같은 책, 권 28, 4-5, ‘答金惇敘’, “心之於事物, 未來而不迎, 方來而必照, 則應而不留, 本體湛然如明鏡止水, 雖日接萬事, 而心中未嘗有一物.”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객관적 인식의 단계를 심화시킨 다음에 안과 밖 곧 주체의 마음과 대상의 이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음이 이치로 확인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치의 단계에서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을 하고 미루어 나아가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수행하는 것을 겉으로 꾸미는 배우라고는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임금으로서 ‘천심(天心)을 받들어 계승하여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곧 평소에 천명(天命)을 받는 일과 재이(災異)를 당하여 ‘하늘의 의지’(天意)를 감동시키는 일에서 ‘하늘을 받드는’(奉天)의 방법과 더불어 그 노력의 효과를 제시하며, 아울러 천의 의지에 어긋날 때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지적하고 있다.<sup>37)</sup>

곧 봉천(奉天)의 방법은, 먼저 평일에는 마음을 붙잡고 몸을 신칙하여 경(敬)과 성(誠)을 다하여 상제(上帝)를 받드는 것이요, 다음으로 재앙의 견책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허물을 반성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여 신중하고 참되게 함으로써 천의(天意)를 감동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봉천의 공효(功效)로는 정치가 문란해지기 전에 바로잡고, 나라가 위기에 이르기 전에 보위하는 노력(功)을 통해 평안하여 재앙과 패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효과(效)를 제시한다. 나아가 봉천에 어긋나는 경우로서는 천심(天心)을 모르고 자신의 덕(德)을 삼가지 않는 자이니, 상제(上帝)는 진노하여 재앙과 패망을 내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奉天	— 方法 —	[在平日] 秉心飭躬, 克敬克誠 : 昭受上帝 / 盡道
		[遇災譴] 省愆修政, 克慎克實 : 感格天意 / 盡心
	— 功效 —	[功] 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 : [效] 有平安而無禍敗
		— 違背 — [不知天心, 不慎厥德者] 反是 : [帝] 震怒 / 降之禍敗

또한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는 도(道)를 온전히 실현할 것이며, 모든 일에 수양 성찰하고, 어느 때나 두려워 말라.” 고 가르친다. 그것

37) 『退溪集』, 권 6, ‘戊辰六條疏’

은 내(內-修己)와 외(外-治人)에서 경(敬)과 성(誠)의 도리를 다 실현하는 것이다.<sup>38)</sup>

이처럼 퇴계의 학문과 삶을 관통하는 중심개념은 '경(敬)'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재하는 중심으로서 고요할 때(靜時) 존양(存養)하고 활동할 때(動時) 성찰(省察)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朱子)의 「敬齋箴」에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눈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침잠하여 거처하면서 상제(上帝)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整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고 언급한 것처럼 경의 실천은 단정한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의 태도는 '정제엄숙(整齊嚴肅)'의 절도이며,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일에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주일무적(主一無敵)'의 자세이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항상 깨어 있도록 요구하는 '기심수렴(其心收斂)' 내지 '상성성법(常惺惺法)'의 방법으로서 퇴계는 이러한 경의 실천방법을 통해 마음의 집중과 각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39)</sup>

그러나 여기서 경의 외형적 내면적 실천은 하나의 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곧 “상제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對越上帝)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만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최종의 근원은 인간이 하늘과 마주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하늘을 망각하고 외면한다면 공경하는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이 진실하게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天命)이요, 천리(天理)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인간존재의 본질이 하늘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 속에 제 九圖로 수록한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서는 경을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발걸음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골라 밟고 개미뚫에서 굽이 돌아가라. 문을 나가면 큰

38) 같은 곳, “推事親之心, 以盡事天之道, 無事而不修省, 無時而不恐懼”

39) 敬의 핵심개념을 정의 하면서 程子는 ‘整齊嚴肅’이라 하고, 朱子는 程伊川의 말을 끌어다 ‘主一無敵’이라 하였으며, 和靖 尹淳이 ‘其心收斂’이라 하고, 上蔡 謝良佐는 ‘常惺惺法’이라 제시하였다.

손님을 맞듯이 하고 일을 받들면 큰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sup>40)</sup> 고 제시한다.

여기서 퇴계는 주자(朱子)가 말한 일거수 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순간 순간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공손하게 하는 경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경으로 동시(動時)와 경시(靜時)를 관통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관통하기를 역설하였다. 또한 「敬齋箴」에서는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으려고 개미뚫을 돌아서 지나가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외경(畏敬)을 보여 주고 있다. 개미를 살아 움직이는 것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한다면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외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의 원리를 통찰하는 퇴계의 눈에는 이미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공자의 가르침에서 인용하여 ‘문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손님처럼 공손히 대하고, 자신이 일을 책임 맡아 사람을 부리게 될 때 큰제사를 받들 듯이 경건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려는 실용적 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목적으로 인식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경의 실천으로서 이러한 생명존중의식은 인간과 만물의 근원적 일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사물에 대해 친족적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퇴계가 율곡에게 “경이란 주일무적(主一無敵)하는 것이니 만약 사물이 한 꺼번에 닥치면 어떻게 응접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율곡이 “주일무적하는 것은 경의 요법(要法)이요, 대응수작(對應酬酌)하는 것은 경의 활법(活法)이니, 만약 사물에 대하여 날날이 궁리하여 각각 그 당연한 법칙을 안다면, 그때그때 사물에 응접하는 것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동서로 응답하지만 마음의 본체는 본래 그대로일 것이다.” 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퇴계는 그 뜻이 매우 좋다고 동의하면서, “오직 이 이치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또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을 쌓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어렵다.”<sup>41)</sup> 하여 수양을 통한 인격의 역량을 길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

40) 주자, 「敬齋箴」, (『퇴계집』, 권 7, 31, 「聖學十圖」),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41) 「栗谷集」, 권 9, 2-3, 「上退溪先生 別紙」, “主一無敵, 敬之要法, 酬酌萬變, 敬之

는 것이 어렵고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퇴계는 만사·만물에 대응할 때 안과 밖으로 분별 대립시키지 않고, 이치를 따라 거울이 만상을 비추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의 실향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밖으로 격물(格物)의 공부를 하거나 응사접물(應事接物)하는 생활 속에서 이치를 따라 물(物)·아(我)를 일관하게 하는 것은 퇴계의 도학(道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가 당면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자연으로서의 사물을 인간과 단절시켜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극복의 실마리도 인간과 사물의 일체성을 각성하는 새로운 자연관·생명관의 재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修養論의 두 軸인 心과 敬

북계(北溪) 진순(陳淳)은 “마음은 한 몸의 주재(主宰)이다.”(心者, 一身之主宰也)고 하고, “경은 한마음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다.”(敬者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고 하여, 경이 마음을 주재하고, 마음이 몸을 주재하는 관계의 질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경은 마음이 분리되어 마음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응집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은 인간의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통제하는 마음 자체의 구심점(求心點)이며,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각성시키고, 통일시키는 중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일신(一身)의 주재(主宰)’라 할 때 ‘일신(一身)’이란 마음과 신체가 결합된 인간존재의 통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한 몸(一身)을 주재한다는 것은 ‘혼연한 대체(大體)로서 일신(一身) 속에서 자재(自在)하는 것’이라 언급하여, 일심(一心)이 일신(一身)속에서 혼연하게 일체가 되어 자재(自在)롭게 활동하는 대체로 제시함으로써, 대체인 마음이 소체(小體)인 신체와 구별되면서도 신체를 떠나 있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퇴계는 마음이 일신속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마음이 일신에 갇

---

活法, 若於事物上, 一一窮理, 而各知其當然之則, 則臨時應接, 如鏡照物, 不動其中, 東應西答, 而心體自如…(退溪) 又答…惟此理非知難而行難, 非行難而能真積力久爲尤難.”

혀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마음과 육신의 차이를 뚜렷이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는 마음의 개념이 방촌(方寸)이라는 공간개념을 주로 해서 말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마음의 체(體)와 용(用)은 가슴에 가득 차고 우주에 두루 미친다.”(其體其用, 滿腔子而彌六合)고 언명함으로써, 마음의 응용이 무한함을 활간(活看)하도록 역설하였다. 이처럼 그는, 마음의 체(體)는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신체가 일정한 크기의 공간과 일정한 기간의 시간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비해 마음의 용(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주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음과 신체의 차이를 대비시켜 주고 있다.

또한 마음은 적연부동(寂然不動)하여 발동하지 않은 [미발(未發)] 체(體)와 감이수통(感而遂通)하여 이미 발동한(已發) 용(用)으로 구별되고 있다. 곧 마음에서 미발의 체가 성품(性)이요, 이발(已發)의 용(用)이 감정(情)이다. 여기서 일신을 주재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적연부동(寂然不動) 미발의 상태에서 서나 감이수통(感而遂通)하는 이발에서나 곧 정시(靜時)와 동시(動時)에서 항상 일신을 주재하는 것임을 말한다.

정복심(程復心)의 심학도(心學圖)에서는 마음을 ‘허령(虛靈)’, ‘지각(知覺)’과 ‘神明(神明)’의 3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령’은 비어있으면서 신령스러운 마음의 본체를 말한 것이고, ‘지각’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허령’과 ‘지각’은 마음에서 체와 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퇴계는 마음의 본체인 ‘허령’에서도 ‘허’는 리(理)요, ‘영(靈)’은 리(理)·기(氣)의 결합이라 제시한다. ‘허(虛)’는 마음의 본체로서 리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허함을 가리킨 것이며, ‘영’은 마음의 본체에 이미 지각능력이 있는 것으로 리와 기의 결합인 마음에서 기의 측면이지만 기만으로 지각능력의 영(靈)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에는 리와 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神明(神明)’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마음의 본체와 모든 사물에 대응하는 마음의 작용을 통합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퇴계는 ‘신(神)’ 개념을 ‘음(陰)·양(陽) 두기의 양능(良能)’이라거나 ‘음(陰)·양(陽)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신(神)을 기(氣)로 보는 정의를 거부하고, 주자가 ‘신은 이가 기를 타고 출입하는 것’(神是理之乘氣以出入者)

이라 정의한 데 따라, 그는 '신명'의 신도 리가 기를 타고, 출입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신명'은 리와 기의 통합이요, 기로만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 (3) 退溪가 밝힌 敬의 의미

이 '한마음(一心)'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 바깥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자기통제를 하는 중심을 의미한다. 퇴계는 이덕홍(李德弘)에게 보낸 답장에서, 경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본체와 감응하여 소통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하며, 고요할 때와 활동할 때를 관통하여 한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곧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고요할 때 '엄숙(嚴肅)'한 것이 경(敬)의 체가 되고, 마음이 발동한 이후 활동할 때 '정제(整齊)'하는 것이 경의 용(用)이라 본 것이다.

그는 한마음의 주제로서 경의 역할과 고요할 때와 활동할 때에 따라 '마음을 붙잡고 간직하는' 조존(操存·靜時)과 '생각과 행위를 살펴서 반성하는' 성찰(省察·動時)의 두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그는 노수신(盧守愼)에게 보낸 답장에서 "고요할 때는 조존 함으로써 허령하여 작용이 없는 본체의 자리에 어둡지 않고, 활동할 때는 성찰(省察)함으로써 움직임이 미미한 조짐이 운행하는 작용의 때에 뒤섞이지 않는다.(動而操存, 不昧於虛靈不用之處, 動而省察, 不雜於幾微運行之時)고 하여, 경이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動·靜)를 일관하여 마음을 주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 조존(操存 혹은 存養)하는 것이 마음의 주체를 각성시키고 배양하는 역할이라면, 활동할 때 성찰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에 따른 정(正)·사(邪)와 득(得)·실(失)과 비(非)와 선(善)·악(惡)을 분별하여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다.

### (4) 敬의 實踐方法

경은 학문과 수양의 원리나 법칙에 머물지 않고, 학문과 수양의 구체적 실천 방법이라는 사실이 퇴계의 수양론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경의 기본적 실천방법으로는 정이천이 말한 '하나를 주장으로 삼아 다른 것에 분산하지 않는다.'는 주일무적과, '몸가짐을 단정하고 가지런히 하며

마음을 엄숙하게 한다.’는 정제엄숙의 과제가 있고, 또한 화정(和靖) 윤순이 말한 ‘그 마음을 수렴한다.’는 기심수렴의 방법과 상채 사랑좌가 언급한 ‘항상 깨어 있게 하는 방법’인 상성성법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일무적은 마음이 집중된 상태를 말하고, 기심수렴과 상성성법은 마음이 각성된 상태를 가리키며, 정제엄숙은 마음과 거동의 안팎으로 함께 드러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동시·정시에 따라 계구(戒懼)와 체찰의 방법이 대비되고 있으며, 특히 경의 실천기반으로서 구방심(求放心)이 중시되고, 경을 통한 성품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계구와 체찰의 방법으로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계구’(戒愼恐懼)는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인 고요할 때의 공부요, ‘체찰’(精察)은 이미 발동한 다음으로 활동할 때의 공부로서 대비되고 있다. 경은 고요할 때와 활동할 때를 관통하여 중단됨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고요할 때가 마음의 본체로서 중시된 결과로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 아무 것도 의식 속에 두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마음에 아무 것도 두지 않는다’, 는 수양론의 격언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이 격언을 잘못 해석하여, 사물이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고, 사물을 싫어하여 잊고자 하거나, 움직임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즐겨워하는 태도에 대해 노자나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양 법이라 비판하였다. 곧 유교의 수양 법에서는 고요할 때와 활동할 때가 일관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퇴계는 마음의 수양을 위해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바깥의 행동과 태도를 다스려 마음을 수습하는 방법을 중시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성품을 기르는 ‘함양(檻羊)’의 방법으로서, 그는 경을 실천함으로써 속으로는 깊고 두텁게 성품을 함양하고, 겉으로는 사람과 일에 응접할 때가 가볍게 지나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속과 겉으로 경의 실천이 일관하기를 요구한다. 이처럼 안팎으로 경의 실천을 계속해 가서 익숙하게 하면, 그 효과로서 스스로 자신을 잃음이 없게 되고, 사람과 대응하여 절도에 맞게 되는 표리(表裏)의 일치(一致)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밖으로 모든 현상에 대응하면서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은 곧 표리일치하는 경의 효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는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성품의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자리이며, 바깥으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하고 마음 속으로는 하나를 주장하는 것은 깨어 있는 때이다.”(平居無事, 是涵養本原地頭, 外儼若思, 中心主一, 惺惺然時也)고 언급함으로써, 경이 겉과 속을 일관시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겉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속은 서로 작용함으로써 일관하는 관계이므로 경의 수양 법에서는 겉과 속의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유교적 수양론의 기본특징이 나타난다.

나아가 경의 실천은 일회적으로 성취되는 형식적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절이 없이 반복된 노력(眞積力久)을 통하여 점점 익숙하게 되어 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침내 본체와 응용이 융화되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극치의 단계를 제시한다.

퇴계는 ‘엄숙하게 함양(涵養)함을 근본으로 삼고, 깊이 침잠하여 연색(研索)함을 학문으로 삼을 것’(一以莊敬涵養爲本, 沈潛研索爲學)을 경의 실천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도리가 한순간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친절하게 체인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는 이 수양법을 실천하는 지속적 과정으로서 “그 사이에서 노닐고 젖어서 점차 쌓여 오래가다 보면 홀연히 녹고 깨끗해지게 된다.”(得以優游涵泳於其間, 庶積漸悠久之餘, 忽然有融釋脫灑處)고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이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흠어지지 않게 하는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도리와 일치하여 온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경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수양의 실천과정과 형성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심과 경의 두 축에서 나타나는 퇴계의 수양론은 심이 수양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라면 경은 수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심과 경은 하나의 심이 한편으로 수양의 객체로서 다스려지고 간직되는 마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마음을 주재하며 붙잡고 간직하고 거두어들이고 바로잡는 수양의 주체로서 인식되기도 하는데 따른 구분일 뿐이



다. 따라서 그의 심성 수양론으로서 심학<sup>42)</sup>은 경으로 마음을 주재하기도 하고 마음이 스스로 수양을 이룬 상태를 보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경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有事·無事), 생각이 일어날 때나 일어나지 않을 때나(有意·無意), 활동할 때나 고요할 때나(動·靜) 관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주경(主敬)의 실천효과로서 생각이 아직 싹트기 전의 고요할 때에는 ‘마음의 본체가 텅 비고 밝아서 본성이 깊고 순수하다.’(心體虛明, 本領深純)하고, 생각이 이미 발동한 이후의 활동할 때에는 ‘의리(義理)가 환히 드러나고 물욕(物慾)이 물러나 따른다.’(義理昭著, 物慾退廳)하여, 동·정(動靜)에 걸쳐 경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달리하면 “고요할 때에는 천리(天理)의 본연(本然)함에 폭 젖고, 활동할 때는 인욕이 싹트는 기미에서 끊는다.(靜而涵天理之本然, 動而決人欲於幾微)고 하여, 경의 수양공부가 천리를 체인하고 인욕을 통제하는 일이요, 다시 말하면 퇴인욕(退人欲), 존천리(存天理)의 공부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퇴계는 수양의 실천과정에서 건강한 정상적인 표준의 양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질적(氣質的) 요소에 따르는 병증(病症)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남언경(南彦經)에게 학문과 수양과정에서 마음에 발생하는 병통으로 ‘이치를 살피는데 투철하지 못해 허공을 억지로 뚫어 억지로 찾으려 하는’(察理未透, 而鑿空以強探) 병통과 ‘마음을 잡는 데 방법을 잃어서 싹을 뽑아 자라도록 돕는’(操心昧方, 而揠苗以助長) 두 가지 기본 양상을 지적하였다. 곧 마음이 리(理)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공허한 관념을 천착하는 데 따른 병폐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과 절차가 순서를 잃어서 도리어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병폐를 지적한 것으로서, 수양(修養)의 과정에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일과 아울러 주의해야 할 병통을 경계해 주는 친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퇴계는 수양의 과정에서 경의 올바른 실현을 상실한 데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병증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김부윤(金富倫)에게 사색이 자세하

42) ‘心學’이란 용어는 퇴계의 경우와 같은 道學의 입장에서는 心性修養論을 의미하는 것이요, 王陽明의 경우에는 心則理說에 근거한 心本體論을 의미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고 찰식(察識)이 정밀하더라도 경의 실천방법을 진실하게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자신이 노력하는 자리와 성현이 말씀하고 행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고 의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에는 틈이 벌어져 헛되이 비교하고 의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명백하게 의거하여 곧바로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게 되는 병통이 생기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학문하는 큰 근본을 경에서 터득하지 못하면 비록 사소한 공부가 있다 하더라도 끝내 곤란이 모여들고 노력에 효과가 없어서 혹은 노장(老莊)이나 불교로 넘어가기도 하는 사실을 경계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김부윤에게 주자가 제자에게 한 말을 빌어 마음에 온갖 구상과 언어를 접어 두고 다만 ‘마음을 붙잡아 두면 간직된다’ (操則存)는 한 구절을 염두에 두는 것을 그 병통에 대한 약(藥)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3)</sup>

퇴계가 마음의 병통으로 가장 깊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분산되고 조급한 병과 고요함에 빠지는 병이 있다. 그는 ‘마음이 분산되고 동요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경을 지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됨을 밝히고 있다. 행동하자 곧 잘못을 저지르는 ‘조급하고 경망스러운 병’은 주자의 견해를 따라 경을 실천하지 않는 병으로서 마음이 사물을 주재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 진단하고, 이 병에 대해 ‘마음을 일치시켜 분산되지 않게 할 것’을 약으로 처방한다. 또한 그는 ‘마음이 부산스럽게 달리고 제멋대로 날아오르는’ 증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도 이러한 증세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붙잡거나 급박하게 억제하려 들면 도리어 병을 생기게 할 것이라 경계한다. 이에 따라 ‘생각을 너그럽게 하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하여 폭 젖어 들게 하며, 깨어 있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항상 맡아서 관리함을 잃지 않게 하도록’(寬著意思, 優游涵泳, 而惺惺主人, 常不失照管) 처방하고 있다. 이러한 경의 실천에서는 번잡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데 빠지면 선불교(禪佛敎)나 노장(老莊)에 기울어지는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그는 ‘생각이 많은’(多思索) 해독이 배우는 이의 공통적 근심이라 지적하고, 마음이 번잡하고 소란하며 편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양(正養)하는 공

43) 『退溪集』, 권 28, 26, ‘答金惇敘’.

부는 ‘고요함’(靜)의 방법이 공자·맹자를 비롯하여 주렴계(周濂溪)·정자(程子)와 구산(龜山) 양시(楊時)의 문하 및 주자에 의해 면면히 제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요함이 한번 지나치면 선(禪)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고요함보다 경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그는 경의 기본적 실천방법으로서 하나를 주장하는 ‘주일(主一)’과 사물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사(主事)’를 일이 없을 때의 방법과 일이 있을 때의 방법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주자는 여조검(呂祖僉)에게 답한 편지에서 “‘주일(主一)’은 ‘전일(專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 없으면 담담하여 편안하고 고요하며 활동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며,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이른바 ‘주사(主事)’는 ‘주일(主一)’ 하는 근거이다. … 만약 얽매임이 있으면 도리어 사의(私意)가 되니, 비록 전일(專一)하여 버리지 않는 듯하더라도 이미 얽매임이 있다면 반드시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잊지 못하기도 하고, 몸이 여기에 있는데도 마음은 저기에 있는 것이니, 이는 ‘산란하여 멋대로 함’(支離畔援)이 되어 주일무적과 상반되게 된다.”<sup>44)</sup>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경의 ‘主一’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마음이 만 가지 일을 거느릴 수 있으니, “마음이 주재하여 전일하면 생각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능히 일에 따라 절도에 맞게 할 수 있다.”하여, 主一이 “한 가지 일을 바야흐로 생각하면 다른 일에는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일에 얽매이는 바가 되어, 사사로운 생각이 될 것이요, 또한 ‘산란하여 멋대로 하는’ 병통을 이룰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만큼 퇴계는 경의 주일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의 주재(主宰)를 확립하는 것이요, 한 가지 생각이나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퇴계는 수양의 기본방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치의 탐구’(窮理)와 ‘경의 실천’(居敬)이라는 두 가지 공부방법이 서로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 이는 경의 실천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진

44) 『朱熹集 四』(권 47), ‘答呂子約’, 2275쪽, “主一只是專一, 蓋無事則湛然安靜而不驚於動, 有事則隨事應變而不及乎他, 是所謂主事者, 乃所以主一者也, … 若是有所係戀, 却是私意, 雖以專一不舍, 然既有係戀, 則必有事已過而心未忘, 身在此而心在彼者. 此其支離畔援, 與主一無敵非但不同, 直是相反.”

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속적으로 힘써 경을 실천해 가면 과일이 익어 맛이 들 듯 서로가 방해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의 지속적인 축적이 없으면 마치 씨 뿌리지 않고 김매지 않은 채 밭에서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한 데 떨어질 것임을 경계한다. 이처럼 퇴계는 경의 확고한 실천과 그 실천의 원숙함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병통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수양론적 중심개념인 마음과 경의 해석에서 리(理)·기(氣)와 체(體)·용(用) 및 동(動)·정(靜)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수양론과 성리학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양자의 연관성을 통해 도학(道學)체계에서 성리학은 수양론을 지향하고, 수양론은 성리학에 근거하고 있는 체용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난다.

#### 4) 水雲이 밝힌 敬과 修養論

최수운의 가르침을 따르는 천도교 교인들의 수행방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수심정기(守心正己)와 성·경·신(誠敬信)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신의 중요성은 수운이 직접 기술한 동경대전(東經大典)의 좌잠(座箴)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나의 도가 넓어도 간략하니 많은 말과 뜻이 필요치 않다. 별 다른 도리가 따로 없으니 성·경·신 석자 일 뿐이다.)<sup>45)</sup>

좌잠은 좌우명(座右銘)의 잠언(箴言)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설정한 것으로 수행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종교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수운이 전한 수행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것은 성·경·신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誠)·경(敬)에 대한 강조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東經大全』, 「座箴」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  
 每有中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誠敬耶 (이렇게 질병에 대처하는  
 것에 이르러 혹은 차도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 단서를 살펴본 바 그러  
 니 성(誠)하고 또 성하여 하늘님께 이른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도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같이 효험이 없으니 이는 성·경을 받  
 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46)

이처럼 성·경을 실천하는 것은 곧 천과의 합일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  
 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책임을 시사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성경(誠敬) 이자(二字) 지켜내어 / 하늘님을 공경하면 /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명 / 몰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47)

위의 내용에서는 성경의 실천목표와 그 대상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경  
 을 실천하면 설령 병을 얻었어도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 병을 치료할 수 있  
 게 되며, 그러한 효험의 결과는 상제를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실천의 강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  
 하는 방법은 물욕을 제거하여 마음의 순수를 찾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수행의 근본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다  
 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이 세상 인심으로 / 물욕 제거하여 내어 /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誠  
 敬) 2자 못지킬까48)

끝으로 성경 실천의 결과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당  
 위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대저 세상 사람중에 / 정성있는 그 사람은 / 어진 사람 분명하니 / 작심  
 으로 본을 보고 / 정성 공경 없단말가 49)

46) 『東經大全』, 「布德文」

47) 『東經大全』, 「도덕가」

48) 『용담유사』, 「교훈가」

정성스러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운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에서 성경의 실천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성과 공경을 통한 도성덕립(道成德立)의 실현과 심신의 안정(安心安身)을 누릴 수 있는 실마리가 성경의 실천에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 Ⅲ. 大巡思想에 나타난 敬에 대한 理解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의 의미와 대순사상에서 주장되는 경의 의미를 「전경」과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대순사상 안에서 경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修道의 要諦로서의 敬

경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경(恭敬)과 삼가(愼)는 의미로 대별된다. 따라서 그것은 마음의 작용과 몸의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그와 관련한 종교적 특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수행의 훈전(訓典)인 것이며,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無自欺)와 상제에 대한 공경(恭敬)으로 집약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의 특성에 기초할 때 그것은 분명 종교적 특성을 지니는 수도의 요체가 됨을 이해하게 된다.

요체(要諦)가 지니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점(an important point) 과 중요롭고 올바른 사리(secret)라고 할 때 수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대요(大要)를 경이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경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수도가 지니는 의미와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수도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9) 『용담유사』, 「권학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sup>50)</sup>

위의 내용에 기초할 때 수도의 궁극적 의미는 시천주(侍天主)의 정신을 집중하여, 영통의 통일을 이루는데 그것을 공경과 정성을 다해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敬)은 수도의 목적인 영통의 통일을 이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은 일상을 통해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그것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상을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경의 실현 방법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心身の 動作을 받아 一身上 禮儀에 適中케 行勵하라.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이 예의에 알맞게 힘써 행하라

경의 실현과 보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몸이 예의에 맞게 힘써 행할 때 실현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언급된 것처럼 퇴계는 경(敬)은 마음의 수양을 위해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바깥의 행동과 태도를 다스려 마음을 수습하는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성품을 기르는 ‘함양(檻羊)’의 방법으로서, 그는 경을 실천함으로써 속으로는 깊고 두텁게 성품을 함양하고, 겉으로는 사람과 일에 응접할 때에 가볍게 지나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속과 겉으로 경의 실천이 일관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心身)이 일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안팎으로 경의 실천을 계속해 가서 익숙하게 하면, 그 효과로서 스스로 자신을 잃음이 없게 되고, 사람과 대응하여 절도에 맞게 되는 표리

50) 『대순진리회요람』 15~16쪽

(表裏)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마음의 중심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밖으로 모든 현상에 대응하면서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은 곧 표리(表裏)가 일치하는 경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성품의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자리를 염두하고, 바깥으로는 생각을 깊이 정중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를 주장하는 것은 깨어 있는 때이다.”(平居無事 是涵養本原地頭 外儼若思 中心主一 惺惺然時也)고 언급함으로써, 경이 겉과 속을 일관시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겉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속이 서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 일관되게 작용하는 관계가 경의 수양법의 근본정신이면서, 겉과 속 중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교적 수양론의 기본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sup>51)</sup>

이처럼 경의 진정한 의미는 표리의 양면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이면서 그러한 마음을 지속하여 지성으로 봉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성봉축(至誠奉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제께 기원하는 것(祝賀)을 말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의 특성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상제님께 기원하는 마음과 몸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경의 실천은 일회적으로 성취되는 형식적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절이 없이 반복된 노력(眞積力久)을 통하여 점점 익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침내 본체와 응용이 융화되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극치의 단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숙하게 함양(涵養)함을 근본으로 삼고, 깊이 침잠하여 연색(研索)함을 학문으로 삼을 것’(一以莊敬涵養爲本, 沈潛研

51) 『대순지침』, 52쪽



索爲學)을 경의 실천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도리가 한순간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친절하게 체인(體認)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수양법을 실천하는 지속적 과정으로서 “그 사이에서 노닐고 젖어서 점차 쌓여 오래가다 보면 홀연히 녹고 깨끗해지게 된다.”(得以優游涵泳於其間, 庶積漸悠久之餘, 忽然有融釋脫灑處)고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소식’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이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흠어지지 않게 하는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도리와 일치하여 온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경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수양의 실천과정과 형성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수도의 궁극적 경지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경은 근원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수도의 대상이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볼 때 경은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그것의 완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경의 특성을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sup>52)</sup>

이와 같이 경의 실현과정과 원리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범위는 천·지·인 삼계(三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정(二程)을 비롯한 퇴계, 수운의 학문과 삶을 관통하는 중심개념은 ‘경(敬)’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재하는 중심으로서 고요할 때(靜時) 존양(存養)하고 활동할 때(動時) 성찰(省察)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朱子)의 「敬齋箴」에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눈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침잠하여 거처하면서 상제(上帝)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整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고 언급한 것처럼 경의 실천은 단정한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의 태도는 ‘정제엄숙(整齊嚴肅)’의 절도이며,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일에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주일무적(主一無敵)’의 자세이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항상 깨어 있도록 요구하는

52) 『대순지침』, 52쪽

‘기심수렴(其心收斂)’ 내지 ‘상성성법(常惺惺法)’의 방법으로서 퇴계는 이러한 경의 실천방법을 통해 마음의 집중과 각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53)</sup>

## 2. 敬과 天·地·人 三界의 關係

앞서 언급된 것처럼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 속에 제 九圖로 수록한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서는 경을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발걸음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골라 밟고 개미독에서 굵이 돌아 가라. 문을 나가면 큰 손님을 맞듯이 하고 일을 받들면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sup>54)</sup> 고 제시한다 또한 「敬齋箴」에서는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으려고 개미독을 돌아서 지나가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외경(畏敬)을 보여 주고 있다. 개미를 살아 움직이는 것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한다면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외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의 원리를 통찰하는 퇴계의 눈에는 이미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경의 정신은 작게는 미물에서 크게는 온 천지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즉 미세한 것으로부터 한없이 크고 위대한 것에 이르는 공경(恭敬)의 정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의 실천은 『전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 사람들로 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sup>55)</sup>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경의 실현과 그 대상은 작은 미물로부터

53) 敬의 핵심개념을 정의 하면서 程子は ‘整齊嚴肅’이라 하고, 朱子は 程伊川の 말을 끌어다 ‘主一無敵’이라 하였으며, 和靖 尹淳이 ‘其心收斂’이라 하고, 上蔡 謝良佐는 ‘常惺惺法’이라 제시하였다.

54) 주자, ‘敬齋箴’, (『퇴계집』, 권 7, 31, ‘聖學十圖’),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踏,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55) 『전경』, 행록 1장 11절.

위대하고 큰 것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경의 특징은 성·신(誠信)과 함께 천지와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자.

…天地誠敬信… 56)

위의 『전경』 내용에서 천지와 성·경·신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면 천지와 성경신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天地之中央心也…57)

천지와 관련한 위의 『전경』의 내용에서는 마음과 천지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즉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라는 내용과 ‘천지는 성경신’ 이다라는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천지는 성경신과 마음이라는 양자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음은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음은 천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用地用人用統制於心…58)

천·지·인 삼계에 작용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주체가 마음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천지와 마음 그리고 성경신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경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양자간에는 천지와 관련하여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북계(北溪) 진순(陳淳)은 “마음은 한 몸의 주재(主宰)이며,”(心者, 一身之主宰也) “경은 한마음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다.”(敬者

56) 『典經』, 교운 1장 60절

57) 『전경』, 교운 1장 66절

58) 『전경』, 행록 3장 44절

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경이 마음을 주재하고, 마음이 몸을 주재하는 관계 질서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경은 마음이 분리되어 마음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응집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은 인간의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통제하는 마음 자체의 구심점(求心點)이며,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각성시키고, 통일시키는 중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퇴계는 “마음의 체(體)와 용(用)은 가슴에 가득 차고 우주에 두루 미친다.”(其體其用, 滿腔子而彌六合)고 언명함으로써, 마음의 응용이 무한함을 활간(活看)하도록 역설하였다. 이처럼 그는, 마음의 체(體)는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신체가 일정한 크기의 공간과 일정한 기간의 시간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비해 마음의 용(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주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음과 신체의 차이를 대비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마음은 천지인 삼계에 작용하여 끊임없는 작용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면 그러한 마음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경신을 통해 천지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삼라만상과 더불어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天地 誠敬信’ 이란 문자 해석 그대로 천지는 성경신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즉 천지는 성경신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故有道有理 天人一也 更不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塞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欲然而餒 知其小也 思無邪 無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有差者皆由不敬不正也…(도가 있고 리가 있는 곳에 자연과 인간(天人)은 하나이니 분별되지 않는다.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바로 나의 기이다. 그것을 배양하여 방해하지 않으면 온 천지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심(私心)에 가려지면 꺼림하여 기가 죽게 되는데 자신이 좁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고(思無邪)” “언제 어디서나 경(敬)으로 일관한다(無不敬)”는 이 두 구절에 따라 실천한다면 어찌 어그러질 수 있겠는가? 어긋난 경우는 모두 경(敬)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때문이다.)<sup>59)</sup>

이러한 내용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경은 사심(私心)과 사악함이 없으며, 언제나 경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삼감(愼)과 공경을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 만한 인육의 사가 없나니라」 하셨도다.<sup>60)</sup>

이처럼 『전경』에서는 천지가 존재하고 움직여 나가는 근본원리인 천리(天理)는 인육이 없는 사무(私無)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경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특성과 부합하고 있는 것이며, 천지와 성경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신의 실현은 천도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그것의 부재가 나타나면 천도와 인사는 상도를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sup>61)</sup>

‘천도의 운행에는 차착이 없다.’는 말을 상기한다면 천도가 어겨지고 삼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결국 천지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정(不正)한 마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작용이 천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순사상에 나타난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천지의 올바른 운행은 성경신을 통해 나타나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도의 바탕에 만물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공경인 경(敬)이 숨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과 공경을 통해 작은 미물로부터 크게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살리고 존재케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마음(心)이 근원이 되는 것이며, 그 심은 천지의 주체이면서 경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를 통해 경을 실현시키는 것은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선천의 부정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60) 『전경』, 행록 2장 17절.

61) 『전경』, 교운 1장 9절

지닌다.

선천의 현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도의 근원이 끊어진’ 부정적인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한계상황을 벗어 던지고 올바른 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지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존재케 할 수 있는 성경신의 실현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성경신의 강조는 비단 인간에 국한되는 도덕적 규범의 강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천지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경의 실현이 온 천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상을 살리고 존재케 할 수 있다는 커다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전경』의 내용을 살펴보자.

... 「경석은 성(誠)·경(敬)·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 고 하시고...62)

위의 『전경』 내용에서 성경신이 지극한 존재를 달리 쓰신다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쓰임에 명확한 목적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제께서 요구하는 인간상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추론하면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실현하시고 그것의 완성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한 천지공사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름이 아닌 성경신을 갖춘 존재인 것이다.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 선경이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바로 잡혀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세계라면, 그러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경신의 실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후천선경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면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sup>63)</sup>

62) 『전경』, 공사 2장 19절

상제께서는 수명과 복록의 일치가 바람직한 것이면서, 그 중에서도 복록의 증합을 역설하고 계신다.<sup>64)</sup> 또한 수명도 복록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복록이 떨어지면 수명도 다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복록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상제이심을 밝히고 있다.<sup>65)</sup>

이러한 수명과 복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후천선경은 복록이 중시되는 사회이면서 그것의 양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sup>66)</sup>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즉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지기금지원위대강’을 이루어 수도의 궁극적 결과인 도통을 이루게 된다.

### 3. 恭敬의 對象으로서 上帝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경(敬)의 특징은 공경(恭敬)이란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공경이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sup>67)</sup>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경의 대상과 주체는 상제에게로 집약되며 나타난다. 먼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大巡眞理會 要覽』을 통해 확인하여 보자.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68)</sup>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핀 지성으로 봉축한다는 의미를 더욱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서, 대순사상에 나타난 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

63) 『전경』, 교운 1장 3절

64) 『전경』, 교법 1장 16절.

65)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경』, 교법 2장 4절, 권지 1장 11절에 나타난다.

66) 『전경』, 권지 1장 11절

67)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96), 207쪽.

68) 『大巡眞理會 要覽』 15쪽

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경의 외형적 내면적 실천은 하나의 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곧 “상제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對越上帝)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만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최종의 근원은 인간이 하늘과 마주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하늘을 망각하고 외면한다면 공경하는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이 진실하게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무자기와 관련한 내용이면서,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天命)이요, 천리(天理)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인간존재의 본질이 하늘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주자(朱子)가 말한 일거수 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순간 순간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공손하게 하는 경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경으로 동시(動時)와 경시(靜時)를 관통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관통하기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지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則有之 無其心則無之).”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옹(拳拳服膺)하여야 한다.<sup>69)</sup>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며, 그러한 이유로 정의로운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위의 결과가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가 표현되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사람의 행동의 결과와 원인은 그가 지닌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통해 투영되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정되

69) 『대순지침』, 15쪽



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은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제를 항상 마주 대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영원히 잃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여 잊지 않는 태도를 간직하여야 한다.

이렇듯 경은 대순사상에서 지성봉축(至誠奉祝)과 그것을 유지하려는 권권복응(拳拳服膺)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성경신을 갖춘 상제에 대한 지극한 공경을 상제를 지극히 신앙하는 지성봉축과 그 의미가 부합하는 것이면서 상제를 영원히 따르는 신앙의 핵심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복록을 누리는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듯 경의 실천은 수도의 궁극적 경지인 도통을 이루는 것이면서 신앙의 완성과 연결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제시되는 경은 신앙과 수도의 완성이라는 양면의 궁극적 가치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 IV. 맺음말

경(敬)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와 의의는 근원과 심성이라는 전통적 학문의 두 축을 하나의 원리로 연결하여 삶의 바탕과 인격의 완성을 통해 원리와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살아있는 학문의 가치를 드높인다는데 있었다.

전적(前續)을 통해 나타나는 경의 본질적 의미를 요약하면, 정이천(程伊川)은 경(敬)을 이치를 밝히는 원리이면서, 한결같이 하여 방종하고 태만함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경으로서 마음을 끈게 하고 의로서 밖의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실천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정명도(程明道)는 경이 지니는 가치를 인(仁)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방법인 동시에 우주와 하나를 이루고 궁극적 경지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退溪)가 주장하는 경은 이러한 근본정신을 이어 받아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삶의 세세한 원리를 통해 제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밀하고 정교한 구조적 체계를 통해 경의 철학적 의미를 밝히고 있었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경(敬)의 특성은 위에서 밝힌 경의 본질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의 정신과 원리를 수도의 요체로 끌어들이며 매우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의미를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것에 종교적 특성을 가미하여 경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수행이나 수도의 원리에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전적의 내용과 대등한 면을 지니는 것이지만, 그것의 범위가 천·지·인 삼계(三界)에 작용하여 크게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인간과 인간사이의 적중한 예절 관계를 가르치는 공경과 신독(慎獨)으로서의 경(敬)과 인간과 초월적 대상의 관계에 나타나는 지성봉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한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경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은 경의 궁극적 실천과 그 대상이 상제에 대한 대월영시(對越永侍)의 마음과 시천주(侍天主)로 이어지는 특성에 있다.

수도의 궁극적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시천주의 정신과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요체로 나타나는 경의 관계는 대순사상에서 주장되는 수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양과 신앙을 하나로 연결하여 결국은 수도의 완성과 신앙의 완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특징을 전달하고 있으면서 도통을 통해 천지와 하나를 이루고 그 정신을 함양하여 천지를 바로 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경의 정신을 꽃피우고 있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4)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指針』,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4)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論語』  
『孟子』  
『禮記』  
『孝經』  
『國語』  
『說文』  
『呂氏孝行』  
『程氏易傳』  
『遺書』  
『新編』  
『退溪先生言行通錄』  
『退溪集』  
『栗谷集』  
『朱熹集』  
『東經大典』  
『용담유사』  
張岱年 著, 金白熙 譯, 『中國哲學大綱』 上·下, (서울: 까치글방, 1998)  
馮友蘭 著, 朴星奎 譯, 『중국철학사』 上·下, (서울 : 까치글방, 1999)